

# 영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비상 사태

지난 1월 영덕 양돈농가 발생 후 5개월만에 터져 제주도, 오늘부터 경북산 돼지고기 반입 절대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영천의 한 양돈 농가 입구에 16일 오전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경북도가 초비상이다. 영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13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북 지역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사례는 지난 1월 영덕 양돈농가 발생 이후 5개월만에 터졌다. 이번이 두번째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0시를 기해 경북 지역의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 영천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제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경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천시의 양돈농장에서 돼지 14마

리 중 13마리에서 ASF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 농장은 돼지 2만 5000여마리를 키우는 곳으로, 농장주가 폐사한 돼지를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 및 방역조치를 했다.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 행동 지침 등에 따라 모두 살처분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7일 까지 대구·경북 소재 돼지농장과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ASF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5곳과 돼지 1만 5000여마리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기준 경북 2곳, 인천 5곳, 경기 18곳, 강원 17곳 등 전국 42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돈농장에서도 (돼지의)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대해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영천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전했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민간과 각 지자체에도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추가 확산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 유튜브 영양 지역 비하 자극적 발언 용서 못해

경북도-영양군, 사회적 피해 해결 적극 대응...

경북도와 영양군이 매우 빨랐다. 최근 지역 비하와 자극적 발언으로 논란이던 유튜브 콘텐츠 탓이다. 도는 사회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지난달 11일, 구독자 300만을 보유한 유튜브가 영양군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재, 영상 속 지역 비하 발언과 자극적인 멘트 때문에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도는 영양군과 협력, 이 논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영양 가독' 콘텐츠 시리즈 두 편을 기획했다. 13일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에 '느리게 걷다 보면 보이는 것들'을 주제로 한 '영양 가독 힐링여행' 편이 먼저 공개됐고, 영양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영양 가독 미식여행' 편도 촬영 중이다. 이 두편의 '영양 가독' 콘텐츠는 다양한 홍보와 함께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된다.

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 영양군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먹거리를 전국에 널리 알린다. 콘텐츠 시리즈를 시작으로 다른 시군에도 확대 적용하여 경북 전역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은 "정확한 조사와 정보 없이 자극적인 콘텐츠로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려다 보니 의도적으로 지역을 비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번 영양군 콘텐츠를 계기로 왜곡된 지역 콘텐츠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관에서 해야 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30 자살 예방, 4050 우울증 극복, 외국인 인식개선 등 공익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제작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영상콘텐츠 부분 대상,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광고·공익 캠페인 부분 수상 등 뉴미디어 분야에서 6개의 상을 받았다. 앞으로도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권윤희 기자



호국길 걷기 행사가 주는 교훈은? 경북교육청이 지난 15일 영덕, 칠곡, 영천, 안동 등 4개 권역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관계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학생들과 함께 영덕 호국길 걷고 있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 老兵이 흘린 눈물의 의미?

땀 뻘뻘 칠곡 대교초 합창단 감격의 눈물 흘린 참전 용사



6·25 참전용사가 노래하는 초등생 합창단원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사진=칠곡군 제공)

무더위에도 6·25 참전용사를 위해 땀 흘리며 노래하는 초등학생과 감격에 겨워 눈물 흘린 노병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칠곡군 대교초 합창단은 지난 15일 칠곡

군 가산면 다부동 일대에서 열린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에서 합창으로 참전용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호국과 보훈을 주제로 소통에 나섰다. 대교초 행복합창단 소속 학생 35명은 10여 분간에 걸쳐 고음과 저음을 오가는 화음을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학생들은 무대로 내려가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한 보훈단체 관계자와 참전용사의 손을 잡고 노래했다. 한 남학생이 내빈석에서 노래를 들던 박덕용 6·25 참전용사 회회 칠곡군지회장 앞으로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목청 높여 노래를 불렀다. 박덕용 회장은 학생이 너무나 고맙고 기특해 흐뭇한 표정으로 눈을 맞추며 눈물을 글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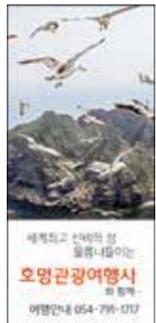
김재욱 칠곡군수는 한 학생이 비오듯 땀을 흘리며 노래하자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아주며 격려했다. 박익성 대교초 행복합창단 지도교사는 "이번 공연이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의미가 깊게 각인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덕용 회장은 "손수건 같은 학생이 최선을 다해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전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됐다"고 고백했다. 김재욱 군수는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나라 사랑 마음이 와닿았다"며 "학생들이 칠곡과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 가는 열정이 가득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조미경 기자

## 상주시, 자전거 도시 위상 한껏 높였다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 큰일 해냈다 2024 음성전국사이클대회 종합우승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팀이 6월 4~7일까지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2024 음성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 자전거 도시 상주의 위상을 높였다. 대한자전거연맹, 충북자전거연맹이 주관하고 음성군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총 67개팀 약 310명의 전국 선수들이 참가했다. 대회에서 상주시청 사이클팀은 단체추발 4km 2위(상주시청), 단체스프린트 1

위(상주시청), 제외경기 2위(김보미), 스포린트 1위(조선영), 스크래치 2위(김민정), 1LAP 1위(김태남), 경륜 2위(조선영), 3위(김태남), 오픈스 크래치 1위(김민화) 등 총 16개 종목에서 입상, 종합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최우수 감독상(전제호)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청 선수들의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얻게 돼 자랑스롭다. 무엇보다도 훈련이나 경기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 건강한 모습으로 상주시를 더욱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갈매기들이 사는 오영관광역영사

### 단체장 일정



최기문 영천시장은 17일 오후 영천과 일흥보를 위해 대구 스타디움부터 망우당공원까지 펼쳐지는 대도시 카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17일 오전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리는 어린이집 학부모 보호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을 전하는 든든한 의회!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만들기 위해 봉화군의회는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의 선도자로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화합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봉화군의의회가 되겠습니다.

#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2

## 군위군 의흥면 지호3리, 새싹마을사업 추진

군위군 의흥면 지호3리 주민들이 지난 13일 '군위형 마을만들기' 2단계 사업인 새싹마을 사업을 추진했다. 군위군 의흥면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호3

리는 2023년도에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 씨앗마을에 이어 올해는 새싹마을로 선정되어 화단과 마을쉼터를 정비하고, 집집마다 문패달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한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 사업도 추진됐다.

장종열 지호3리 이장은 "우리가 직접 발굴하고 참여해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 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 대구시,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 지원 대책 마련...

## 상반기 폐지수집 어르신 1189명 전수조사 실시

대구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역의 고물상과 폐지수집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1189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지수집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에서 폐지수집을 하는 어르신들은 1189명으로 284개 고물상과 거래하고 있었다.

그중 여성이 708명(60%), 국민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379명(32%),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1077명(91%)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은 261명(22%)이었으며,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18%(219명)로 나타났다.

우선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상황을 고려해 낮은 강도의 공공 노인일자리를 연계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폐지수집을 계속하길 원하는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6개 구·군 시니어클럽에서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구성한다.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은 어르신이 수집한 폐지 등 판매 수익과 추가 지원금을 합해 급여

를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폐지수집 후 구·군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은 공동판매처(고물상 등)로 가져오면 평균수입의 2배가량(월 30만 원 정도)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생계나 주거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은 긴급복지 혹은 달구벌 복지기동대와 연계해 위기 상황 또는 위기 우려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돌봄이 필요한 폐지수집 어르신은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울 및 만성질환 등을 앓는 어르신은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인 건강관리(2개월 1회)와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폭염 및 폭한기 대비용품 지원과 폐지수집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정의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노인일직리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돌봄 역할과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달성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서도원 의장 "상반기 군정 평가하는 자리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 충실히 하겠다"

달성군의회는 17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6월 28일 까지 12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상정 조례안 심사,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실시한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 지원 표지판 설

치에 관한 조례안」, 김은영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홍배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박주용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먼저 17일 개최식에 이어 오전 10시에 △도시 관 운영 중장기발전방향제안(김은영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도원 의장은 "제1차 정례회는 상반기 군정 활동을 평가·마무리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2024년 상반기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에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의하는 17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보고 청취하고 20일부터 25일까지 주요안건 심의하고 26일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오는 28일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조여은 기자

##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MOU

### 마음도 살피고!! 꿈도 키우고!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맞춤 지원서비스와 진로·진학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구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와 지난 6월 13일 목요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3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민경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비롯한 종사자들과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장과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양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맞춤 지원서비스와 청소년 진로·진학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관내 청소년 교육, 상담, 진로, 일탈예방 등을 위한 체계 구축과 △청소년 효율적 보호 체계망 형성을 위한 상호 연계 △협약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인성 함양 등이 포함돼 있다.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경일 센터장

은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힘을 합쳐 지역 청소년들에게 적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의 박용태 센터장은 "진로·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 기관이 함께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MOU)은 북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실이다"며, "청소년들이 맞춤형 상담과 진로 지도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심리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학업 및 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이다. 교육신청 및 상담문의는 전화(053-324-1388) 또는 홈페이지(www.teen1388.or.kr)로 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 달성군, 애니메이션으로 도로명주소 교육... 달성 12경 답아

### 달성군 관내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달성군은 도로명주소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애니메이션 '지금 만나러 갑니다' 2편을 제작했다.

애니메이션에는 달성 12경을 배경으로 달성군의 관광명소를 의인화한 캐릭터가 등장해, 도로명주소 및 시물주소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지난달 군은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대구 서동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교실을 운영했다.

교육은 △도로명주소 이론교육 △애니메이션 시청 △도로명주소 퀴즈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야기자기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키링 등의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은 6월에도 이어진다. 이달에는 화원초등학교(20일)와 옥포초등학교(21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군은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생활

화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을 받은 한 학생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배우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영상에서 가보지 못했던 우리 지역 관광명소를 보았는데, 주말에 부모님과 꼭 방문해 보고 싶다"라고 전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이 우리 군의 관광명소와 도로명주소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실 운영이 많은 학생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시청한 주소정보 홍보 애니메이션 '지금 만나러 갑니다' 1편, 2편은 달성군 유튜브(전국 달성지량)에서 시청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 중구청, 신천둔치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 완료



### 신천 범람으로부터 구민 재난·재해 예방

중구청은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신천 범람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 진출입로 17개소 중 차량진입로 3개소를 제외한 전체구간에 하천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심 하천 진입 차단시설은 수위 상승으로 하천둔치 침수 예상 시 신속하게 게이트문을 닫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진출입로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차단시설 설치는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하는데

따른 예방조치이다. 구에서는 신천 진출입로 폭이 1.5m부터 4.8m까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크기가 일정한 기성품이 아닌 맞춤형으로 제작 설치했다. 스위치게이트 형식으로 평소에는 벽면에 붙어서 고정하고 신천 둔치 침수 위험 시 게이트문을 닫아 진출입로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전에는 직원들이 진출입로 17개소에서 차단망인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2인 1개조로 현장 근무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집중호우 시 차단시설을 활용하고 차량 진입로 3개소는 현장근무와 병행해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군위군, 청렴 리더십 역사 교육

군위군은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리더십 역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직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 속의 청렴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열정적인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날 강의는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신병주 교수는 역사 속 왕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청렴한 행정을 주도하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윤리의식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군위군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청렴한 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올해 초 '2024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청렴 교육을 비롯해 청렴 실명제 캠페인 실시, 청렴결의대회 개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 대구시, 과기부 공모 최종 선정

(AI·데이터 융합기반 개발지원 사업)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공모한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업과 대학의 AI 기술 협력과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기술의 한계를 해소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지역 AI 전문가(6인)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2026년까지 50억 원 예산으로 '협력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특히 지역 AI 기업의 인력·기술적 한계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DGIST의 AI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산·학 AI 융합과제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의 융합과제는 보유기술, 데이터 우수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됐으며, AI 요소 기술들을 접목하는 다양한 세부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이러한 DGIST와 산업계 간 경쟁력 있는 기술지원의 협력적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 AI-데이터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로 융합산업 확산과 상용화를 추진해 실질적 매출 증대가 전망된다.

조여은 기자

### 구미 김춘열씨, 제67회 보화상 '선행상' 수상

구미시 비산동에 사는 김춘열(62·여)씨가 제 67회 보화상 '선행상'을 수상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학습 기회를 놓친 어르신에게 한글재능기부를 한 공로가 인정

됐다. 비산동 통장을 맡아 각종 행사에 출선 수범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도 힘겹게 공부하는 이들

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큰 상을 받아 영광"이라고 말했다.

보화상은 고(故) 조용효(당시 33세) 선생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1956년 동양 윤리도의가서 양 물질문명에 밀려서 쇠퇴해가는 것을 개탄하고 윤리도의 양양을 목적으로 제정한 상이다.



#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결실 위한 막판 총력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월 체코 언론 대상 사업현황 설명회 개최, 그리고 지난 4월 최종 입찰서 제출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체코를 방문해 다양한 수주 활동을 전개했다.

황 사장은 현지시간 지난 12일 체코를 방문해 체코 산업부 장관이자 신규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장관

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황 사장은 '준비된 한수원,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한수원, 체코의 최적 파트너 한수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의지와 역량을 재차 피력했다.

지난 13일에는 체코 현지 언론 대상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해 한수원의 우수한 원전 건설 역량을 강조하며 한수원에 대한 우호 분위기를 조성했다.

같은 날 '한국-체코 원자력 및 문화교류의 날' 행사도 있었다. 한수원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체코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한수원과 공동협력협약을 맺고 협력하고 있

는 한국 기업(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지빌리티, 대우건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참여했다.

체코산업부, 체코산업연맹, 원전예정지 주요인사, 한국-체코 미래포럼 의장, 체코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체코전력산업연합(CPIA) 소속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 시그마그룹 등 110개 기업 및 양국 주요 이해관계자 4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지난 14일 원전건설 예정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를 방문,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7년간 후원하고 있는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의 후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황 사장은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온 체코 글로벌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2,13일 이틀간 한수원이 체코에 제시한 노형인 APR1000의 노심시물레이터를 체코공대에 전시하고 체코공대와 함께 원전 운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부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원전 기술교류 및 연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 산업계, 발주사, 학계 및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주 활동을 펼친바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체코 현지 수주 활

동을 마치며 "한수원은 탁월한 건설역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사(EDUII)는 두코바니 지역에 1200MW 이하급 원전 1기 건설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체코 정부는 최대 4기까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29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체코 정부는 올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윤용환 기자



지난 15일 구미시 금오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 개막식 후 축하 떡 절단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제공)

## '2024 경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 성황

### AI·메타버스 신기술 영화 융합 새로운 창작무대 열려 큰 호응

'2024 경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가 지난 15,16일 이틀간 구미시 금오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영화제는 'Movie In the other Universe'를 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영화·영상 대상을으로 국제 영화제다.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포함해 약 5,000여 명의 국내외 관객이 참여했다.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임영하 조직위원장, 영화인을 비롯해 미국, 키르기스스탄, 태국 등 해외 영화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 영화제의 시작을 축하했다.

GAMFF 포럼, 환영 리셉션, 개막 시상식, 폐막식 등 다양한 공식 행사가 열렸다.

공모 수상작 및 초청 영화 상영, 레드카펫, 체험부스, 코스프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관객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화제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인 캠프월드(www.gamffworld.com)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새로운 시도로 접속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포럼, 개막식 등 주요 행사는 캠프월드를 통해 전 세계 접속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었다. GAMFF 포럼에서는 '예술과 기술의 융화, 새로운 창작과 국제교류의 확장성'을 주제로 전문가, 국내외 영화인, 대학생, 수상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공모전 시상에서는 영화 및 영상 부문에서 10개교 총 22편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화 부문 대상은 한국 출신 김소희 감독이 제작한 'My Dear'에 돌아갔다.

AI를 주제로 일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이 영화는 청각장애를 지닌 대학생이 AI 어플 미디어를 설치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다.

영상 부문 대상작은 러시아 출신의 세르게이 코친체프 감독이 제작한 'Lullaby(자장가)'로 우크라이나 동요를 모티브로 모든 영상이 신경망 그래픽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이번 영화제에는 일제강점기 한국 영화 예술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구미 출신 김우영 감독의 업적을 기리는 특별상도 함께 수여됐다.

심사 위원장인 이장호 감독은 "첫 공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42개국에서 많은 작품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와 수준이 생각 이상이었다. 현 영화감독으로서 느낀 영화계의 새로운 변화와

영화제의 방향성이 잘 맞춰졌다"고 언급했다. 양운호 예술 총감독은 폐막식 영화제 총평을 통해 이번 출품작들은 영화제작에 있어 기술의 확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AI·메타버스 기술은 실생활은 물론 영화제작 분야에도 앞으로 활용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화제를 주관한 임영하 GAMFF조직위원장 은 "국내 처음으로 첨단 기술을 주제로 한 혁신적인 2024 경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제를 통해 AI와 메타버스 기술이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큰 잠재력을 확인하고 새로운 창작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메타버스 산업과 AI기술 융합간 시너지 효과의 실제 사례로서 경북에서 추진 중인 버추얼 휴먼 특화거점 조성, 메타버스 혁신 특구 조성 등 AI 메타버스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영화제는 영화 산업에 AI와 메타버스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 "영양군에는 돼지 한마리도 없어요"

### 영양군 돼지가 없는 곳으로 변한것은 2019년부터 5년째



'농도 경북의 시군 가운데 돼지가 마리아도 없는 곳이 있어 화제다.

도내에는 모두 143만6000여 마리(지난 해 12월 기준)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나 영양군에는 돼지가 마리아도 없다.

울릉군조차도 4마리가 있다.

영양군이 돼지가 없는 곳으로 변한 것은 2019년부터 올해 5년째다. 그해 마지막 돼지 사육 농가는 소사육으로 바꿨다고 한다.

영양군에 돼지가 없는 이유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산촌에서는 분뇨처리가 힘들고 교통여건도 안 좋아 돼지를 출하하고 이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돼지 사육은 분뇨냄새로 민원이 많아 전국 어디에서나 신규로 인허가를 받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영양은 물론 도내 교통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도 점차 돼지

사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영양군에서는 2004년 22농가 2288마리에서 지난해 모두 0으로 변했다.

영양군과 함께 경북에서 교통외지로 통하는 울진군도 2004년 20농가 1만1122마리에서 지난해 2농가 5950마리로 크게 줄었다.

이 기간 돼지 사육이 줄어든 곳은 이들 두 지역과 함께 포항시(60농가 3만6000마리→12농가 2만4000마리), 경주시(137농가 14만9000마리→58농가 11만2000마리), 성주군(60농가 10만1000마리→39농가 10만마리), 칠곡군(61농가 4만5000마리→14농가 2만9000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포항시는 흥해읍과 오천읍 등 도시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경주시는 문화체험이 엄격해 신규 돼지사육 인허가가 특히 까다롭고, 칠곡군은 군 단위이지만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돼지사육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16개 시군에서는 사육두수가 모두 늘었다.

도내 전체 돼지 사육두수는 2004년 129만4000여마리에서 지난해 143만6000여마리로 11% 늘었으나 사육 농가는 1348농가에서 612농가로 55%나 줄었다.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가 960마리에서 2346마리로 대형화한 것이다. 이 기간 돼지 사육두수가 11% 늘어난 것에 비해 소(한우) 사육두수는 37만여 마리에서 74만9000마리로 102% 급증했다. 권용홍 기자

## 경력 단절 여성 134만 9000명... 경제적 손실 연간 44조 원

### 경북도, 일자리편의점 여성 경력 단절 해소!

저출생과 전염을 선포한 경북도가 온종일 안전 돌봄의 정착과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일자리편의점'을 운영한다.

도는 17일 구미시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과 돌봄 양립을 위한 경북도 일자리편의점 1호점 구미지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일자리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간단하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본 지자체 중 출산율 1위인 오카야마현 나기초(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 2.95)의 일자리편의점에서 착안한 사업이다.

일자리편의점은 일과 돌봄 병행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공공 및 기업 등에서 최소 1일에서 최대 3개월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김성용 기자

## 경북교육청, 2024 호국길 걷기 성공

은 경북이 평화로 미래로 함께 나아간다! - 경북교육청이 마련한 호국길 걷기 행사가 큰 의미를 주었다.

지난 15일 영덕, 칠곡, 영천, 안동 등 4개 권역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6,25 참여자와 유가

족, 관계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6·25전쟁 유적지를 걸으며 정전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행사는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통일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4개 권역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다. 김성용 기자

### 예천군 마을순찰대 발대식

예천군은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예천군 마을순찰대를 조직하고 14일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예천마을순찰대는 예측 불가능한 극한 호우 및 취약시간대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을 현황에 밝은 순찰대원(이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과 마을 전

담 공무원 등 1400여명으로 구성된다.

마을순찰대는 호우 특보 등 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침수나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예찰하고 재난 징후 발견 시 마을별로 지정된 대피소로 마을주민을 대피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총력

조현일 경산시장, 교육중심 정주 거점도시 조성 총동원



이철우 경북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조현일 경산시장이 지난 14일 경북교육청 오피스에서 경북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산시제공>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14일 경북교육청 오피스에서 경북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형 교육발전특구는 "글로벌 인재양성! 정주형 교육거버넌스 도시 경산"을 건설한다는 비전으로 관내 13개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다. 차원적 전생애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총합된 돌봄(늘봄)체계 구축 △지산 학원 일체형 Univer-city 경산건설 △차별 없는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

았다.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총체적으로 준비해왔다.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1일~12일까지 학부모, 교육기관, 기업체 등 시민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 수렴된 의견을 추진방안에 반영했다.

지자체,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를 구성한 후 간담회 및 용역 보고회를 열어 각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협약식에 참석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모든 역량을 결집,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경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어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13개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보육·초·중등 교육 혁신, 나아가 산업체 우수 인력 확보 및 청년 인구 정착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교육중심 정주 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차 신청 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공모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결과는 7월 말 발표된다. <조미경 기자>



## 2024 첫 타운홀미팅 '청춘블라썸' 성공

김재욱 칠곡군수, "결혼 출산 미래와 깊이 연결된 중요한 문제"

김재욱 칠곡군수와 청년 30명이 참여하는 2024 첫 타운홀미팅 '청춘블라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칠곡군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세대별로 초청,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자 '타운홀미팅'을 추진 중에 있다. '청춘블라썸'은 첫 번째 타운홀미팅으로 근로

자, CEO, 대학생 등 분야별 청년 30명을 초청하여 결혼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결혼·출산 장려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격식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참여청년은 "비혼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청년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며 더 나은 칠곡군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미래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도 깊이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청년들의 결혼 기피·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 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 한다. <조미경 기자>

## 상주시,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대상 수상!

농업인 뛰어난 온라인 판매경쟁력 확인 성과

상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열린 2024 농업인 스마트경영 경진대회에서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경진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스마트 농업, 디지털 마케팅 등 농식품 생산·유통과정의 정보화 우수사례를 발굴, 농업·농촌 현장의 스마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총 3개 분야에서 경진이 이뤄졌다.

정재오 대표(상주몽티기꽃감농원)와 유원주 대표(상주감돌이농원)는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의 대상 수상자로, 이번 혁신대회에 경북을 대표하여 참가하게

됐다.

대회에서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를 이용, 재치있게 방송을 했다.

소비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 시청자의 큰 호응을 끌어낸 점을 높게 평가받아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경진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 대표는 "이번 성과는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꾸준히 적용하고 실천한 결과이며, 앞으로 상주시정보화농업인들과 라이브커머스 노하우를 공유, 함께 발전해나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상주시 농업인의 뛰어난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확인했고, 상주시 농업인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 포항시, 꿈의 신소재 그래핀 산업 육성 ...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2025년 완공 필름 생산

포항시는 지난 14일 체인지업그라운드 미디어홀에서 글로벌 그래핀 선도기업 '그래핀스퀘어'의 포항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기업체와 경북경제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등 지역 R&D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 '그래핀스퀘어'의 포항공장 착공을 축하했다.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은 탄소로 이뤄진 벌집 형태 구조로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며,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보다 전자의 속도를 100배 이상 빠르게 이동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핀 소재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양자 컴퓨터, 바이오 신약 등 다양한 응용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포항시는 일찍이 그래핀을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신소재로 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견인할 그래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시는 2021년 포항시-그래핀스퀘어-포스코-포스텍-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전략'을 수립해 포항지역의 산·학·연·관 협력을 기반으로 그래핀 기술의 성공적 상용화와 글로벌 그래핀 시장 선점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핀스퀘어'는 세계 최초로 그래핀 대량 합성기술을 구현하고 상용화해 실생활에 응용하는 기업이다.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은 블루밸리 산

업단지 내에 대지면적 3만3124㎡, 연면적 6,803㎡ 규모로 오는 2025년 1분기 완공, 3분기에는 본격적인 그래핀 필름 생산에 들어간다.

홍병희 그래핀스퀘어 대표는 "그래핀은 무궁무진한 활용성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혁신을 일으킬,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며, "그래핀스퀘어는 그래핀을 통한 가치를 세상에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철강, K-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산업혁신에 앞장서 온 포항시에 그래핀 상용화 공장이 들어선 것이 매우 의미가 깊다"며 "그래핀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해 포항시가 세계적인 그래핀 산업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명 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산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청렴한 교육, 경산교육지원청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교육장 **이재현**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경주시, 토함산지구 일대 산사태 예방 총력

경주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토함산 일대 사방댐 준설사업 및 긴급복구 작업에 나섰다. 국립공원 토함산지구 내 산사태 피해지역 24곳을 조사하고 응

급복구가 필요한 사방댐 1곳과 하류 7곳을 대상으로 긴급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복구인 만큼 이달 내 작업을 완료

한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 행동요령 홍보물을 배포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무선망을 방송 가정용 수신기 보급 확대와 함께 주변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경주술술페스티벌’ 6월21일 막오른다

사계축제의 정점 축제 맥주 축제 HICO1층 실내 전시장서 펼쳐져 100여종 넘는 수제맥주, 무대서 밴드 디제잉...즐거움 흥미 선사

경주의 여름 대표 축제인 ‘경주술술페스티벌’이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역대급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왔다. 오는 21~23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1층 실내전시장에서 ‘경주술술페스티벌’이 열린다. 경주시는 올해는 지난해 보다 참가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갈매기브루잉, 아트몬스터, 화수브루어리 등 지역 대표 12곳의 수제맥주를 비롯해 경주범주, 레인보우주식회사, 양양술공간 등 8곳의 전통주 양조장을 만나볼 수 있다. 산미구엘, 빅웨이브골드에일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12곳의 수입맥주 브랜드까지 참가해 약 100여종 이상의 주류 라인업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주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구마스틱, 닭강정,

큐브스테이크, 새우튀김, 핫도그 등 40여종의 안주류는 5000~1만700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마련돼 축제의 맛을 더한다. 축제기간 매일 무대에서는 보컬, 밴드, 디제잉(EDM)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즐거움을 선사한다. 행사 첫날 김홍남(보컬), 둘째 날 우디(보컬) 등의 유명 가수 공연은 눈여겨 볼만하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포토존은 물론 대형 젠가 게임 등 참가자들의 재미요소를 더한 특별한 행사도 있다. 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후원으로 경주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황리단길, 동경주 등 주요 거점지와 HICO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즐기 좋은 행사다”며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보문관광단지에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수제맥주를 맛보며 흥겨운 음악과 함께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첫 개최된 술술페스티벌은 지난해 3일간 1만8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개최된 경주술술페스티벌 축제 현장

중국 우호도시 후베이성 이창시 대표단 경주 방문

중국 이창시와 경제·관광 분야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 모색... 중국 우호도시인 후베이성 이창시 대표단이 13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했다. 탄젠궈(譚建國) 중국 이창시 부시장은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경주시-이창시 두 도시 간 경제·관광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경주를 찾았다. 이창시는 중국 파(巴)·초(楚) 문화의 발상지이자 굴원과 왕소군의 고향으로 2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다. 세계 최대 발전용량을 갖춘 장강삼협댐 소재지로서 세계적인 수력발전 기지이자 LS전선 중국 법인인 훙치전선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시와 이창시는 한중 양국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3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후 문화·관광·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오후 5시에 경주시청을 방문한 대표단 일행은 김성학 경주시장을 접견하고 관광 교류 증진 및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향후 우호도시 간 관광객 상호 파견 등 관광교류협력 증진에 적극 나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저우시 이창시 부시장은 “경주시와 이창시 간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 도시가 문화·관광·경제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운을 뗐 뒤 “우호도시 간 관광교류 상호 파견 등 관광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두 도시 간 상호 상생하는 길을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중국 이창시 부시장이 13일 경주시를 찾아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과 환담을 나누는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학 부시장은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대표단을 만나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교류가 문화관광 및 경제통상 분야로 확대되어 두 도시 간 경제 및 기업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경주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이용... 할인혜택 풍성

배달앱으로 착한가격업소 주문 이달부터 2000원 배달료 지원

경주시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경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5% 캐시백을 제공하고,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면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경주페이 5% 캐시백 제공은 다음 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착한가격업소 중 건강나라, 왕림탕을 제외한 30곳에서 가능하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배달료 지원은 이용자에게는 건당 2000원을, 착한가격업소에게는 매월 8만원 범위 내 배달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맥게비, 팽겨요, 위메프 등 민간·공공 배달앱 모두

포함된다. 이용자들은 배달앱에서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후 착한가격업소 메뉴 선택을 거쳐 할인쿠폰 적용으로 결제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배달앱 할인혜택 착한가격업소는 금강삼계탕, 서울왕족발치킨, 정이든면, 김경진의 라이브 뽕닭, 팔우정식당 등 5곳이다. 착한가격업소만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저렴한 가격, 깔끔한 위생, 품질상태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희희망물품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월 최대 30톤) △착한가격업소 인증 LED표찰 제작, 방역소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주낙영 시장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이용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경주시, 폐철도 활용 주민편의시설 조성 ‘박차’

경주시가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 따라 2021년 12월 경주 도심을 관통하던 동해남부선·중앙선 80.3km와 철도역 17곳이 폐선·폐역으로 지정됐다.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황성동 임시주차장 조

성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3월 △황성당 옆 임시주차장을 시작으로 △유림초등학교 앞 △력키아파트 앞 △황성2지하차도 앞 △삼보5차아파트 앞 등 임시주차장 5곳이 조성됐다.

또 △현대5차 아파트 앞 임시주차장이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황성동에만 차량 56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6곳이 조성된다. 시는 임시주차장 6곳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비 5억 7700만원을 투입했다. 임시주차장 6곳 조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황성동 일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용한 기사/사진 경주시제공

Advertisement for Jeongeom Construction (정안건설). The ad features a large background image of a modern building's facade with a grid-like pattern. On the left, there are four smaller inset images showing different interior and exterior views of buildings. In the center, the company logo and name '정안건설' are prominently displayed. To the right, there is a block of text in Korean: '정안건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Below the text, there is a stylized graphic of a building's roof structure.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 울릉군, 전세계로... 'K-관광섬'으로 거듭난다

## 'K-관광섬 울루랄라 울릉도' 사업의 일환 고아웃 슈퍼하이킹 - 우릉 및 솫솫클럽 행사

울릉군이 'K-관광섬'으로 거듭 날 준비에 분주하다.

천혜의 섬 울릉도에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 각각 '제2회 고아웃 슈퍼하이킹-울릉' 및 '솫솫클럽(DARE TO DIVE ULLEUNG)' 등 6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들은 'K-관광섬 울루랄라 울릉도'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액티비티 환경을 각인시키고, 울릉도만의 다채로운 풍경을 즐기면서 참가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인상 깊게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군은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명소인 'K-관광섬'으로 육성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울릉도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살린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제2회 고아웃 슈퍼하이킹-울릉도 연이어서 추진한다.

고아웃 코리아가 주최하는 행사로 울릉도 해담길 코스 약 20km 하이킹 및 현포분교 및 나리분지에서의 수영 일정으로 진행된다.

행사 1일 차 코스는 총 4개 코스로 1코스(2km, 만물상 전망대△학포야영장△학포 다이버리조트△울릉해담길(6-1코스 시종점)), 2코스(2.7km, 울릉해담길(6-1코스 시종점)△태하삼도사 입구△대풍감 전망대), 3코스(2.7km, 대풍감 전망대△울릉해담길 중간 쉼터△울릉도산채영농조합), 4코스(2.6km, 울릉도산채영농조합△한국해양과학기술원△현포분교(1일차 숙영))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2일 차 코스는 또한 총 4개 코스로 1코스(1.5km, 현포분교△울릉도 생태탐방로), 2코스(3km, 울릉도 생태탐방로△평리1길△평리2길△울릉천국아트센터), 3코스(3.7km, 울릉천국아트센터△깃대봉△깃대봉 메밀밭), 4코스(2.3km, 깃대봉 메밀밭△나리분지(2일차 숙영))로 예정되어 있다.

'솫솫클럽(DARE TO DIVE ULLEUNG)'은 코오롱 스포츠가 주최하며 하이킹, 트레일러닝, 클라이밍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별 코스는 하이킹(14km, 나리분지△말발△깃대봉△말발△나리역새투막집△말발 등 △성인봉△말발등△장제△나리분지), 트레일러닝 (16km, 태하삼도△태하향목 전망대△웅포 캠핑장△현포항△울릉천국 아트센터△깃대봉△말발△나리역새 투막집△나리분지), 클라이밍(코스 미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행사들을 통해 울릉도는 단순히 보는 관광 외에 즐길 거리가 없다는 기존의 오해와 편견을 벗어버리고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섬이라는 사실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환 기자



## 영양읍 향영삼씨, '제67회 보화상' 효행상 부문 수상

영양읍 영양읍 향영삼(남,58세)씨가 지난 14일 대구시 보화회관에서 열린 '제67회 보화상' 시상식에서 효행상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양읍 화천2리에 거주하는 향영삼씨는 재단법인 보화원이 주최하는 제67회 보화상 시상식에서 효행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단법인 보화원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윤리·도의를 복원케 하고자 매년 대구·경북 지역 내 효행자와 효행자, 선행자를 발굴하여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 효행상을 수상한 향 씨씨는 영양읍 화천2리 마을이장을 하면서 마을의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아주시는 보살핌에 이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현재까지 간호하는 등 효행을 몸소 실천하고 노인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태경 영양읍장은 "가족체제 문제가 심각한 요즘 효행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 우리 영양읍에 있어 자랑스럽고 이번 수상이 경로효친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윤종 기자



## 영덕군, 치매·실종 예방 배회 대처 모의훈련 실시

영덕군치매안심센터는 매년 증가하는 치매 인구로 인해 지속적인 실종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실종 사고 발생 시 신속·안전하게 구제하기 위해 지난 13일 강구면 금호1리 치매보듬마을에서 치매 극복, 실종 예방 프로젝트 '배회 대처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주민들에게 치매 환자의 특성과 대응 요령 등의 교육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종자 발견, 신고, 인계의 전 과정을 체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치매와 실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황극 공연, 치매 OX 퀴즈, 치매안심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작품 전시회, 포토존, 보건소 건강홍보 부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참여자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영덕군 공재용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치매와 실종 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공동체 모두가 사회복지 안전망에 참여해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복지서비스를 함께 실천하고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 영덕군, 의병장 신돌석 장군 순국 116주기 송모제향 봉행

### 태백산 호랑이의 송고한 희생정신 나라 사랑 뜻 기려

영덕군과 신돌석 장군 송모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장산 신돌석 장군 순국 116주기 송모제향'이 지난 13일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봉행됐다.

이번 송모제향은 장군의 후손들과 송모위원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으로 김광열 영덕군수, 아헌관에 안해원 경찰서장, 종헌관에 김두기 영덕문화원장의 제관 아래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됐다.

의식행사는 제향행사에 이어 송모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신돌석 장군과 영릉의병진

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 공연과 추모 시 낭송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송모제는 호국보훈의 달의 맞이해 원황초등학교 그린나래 합창단이 지역을 대표해 합창 공연을 한 달여간 준비해 선보였으며, 전통악기 중 하나인 생황 공연과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초등 부문 대상을 수상한 민요 영재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송모 제향을 더 풍성하게 꾸몄다.

송모위원회 권효준 위원장은 "신돌석 장군의 송모제향은 장군의 송고한 뜻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나라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군의 삶에 대한 오늘날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송모사를 통해 "나라를 위



해 일생을 바친 장군님의 송고한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은 대한민국이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밑바탕으로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라며, "송모제향을 통해 영덕군 호국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의로운 뜻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 영양군, 경북도 세무공무원 지방세 세입정보 교류대회 송모제향 봉행

영양군은 지난 15일 영양군 공설운동장에서 2024년 제17회 경상북도 세무공무원 지방세 세입정보 교류대회를 개최했다.

2004년 개최를 시작으로 17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경북도 세무공무원협의회가 주최하고 세무공무원영양군협의회에서 주관한 행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책임지는 도 및 22개 시·군의 세무공무원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서로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해 영양군의회 김영범 부의장 및 국회의원, 지난 5월에 신임된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세무공무원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권윤종 기자

## 울진에서 만나는 걷기 좋은 길 추천 5선...

### 피톤치드 가득한 길 걷기로 웰니스 여행

울진군은 산림욕 해수욕·온천욕 자연 삼육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다.

경북 동해안 북쪽에 있는 울진군은 금강소나무 숲길로도 유명한 울창한 숲과, 시원한 푸른 동해 바다, 뜨끈한 온천까지 갖춘 관광지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송 군락지와 천혜의 계곡을 지닌 울진은 자연 그대로의 다양한 생태 자원을 볼 수 있는 걷기 길이 존재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걷기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그 중 울진군 최고의 걷기 좋은 길 5선을 소개한다.

■ 금강소나무숲길  
산림청이 국가숲길로 지정한 이 길은 자연 그대로를 살린 친환경적인 숲길로 현존하는 금강소나무 원시림 보존지역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수백년 된 금강소나무의 피톤치드로 지친 몸과 마음에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총 7구간(80km)의 탐방로가 있으며 산림보호를 위해 1일 탐방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로 운영

한다. 탐방객들에게 지명유래, 구전전설, 나무 이름과 특징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숲해설 생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숲, 울진'이 가장 어울리는 탐방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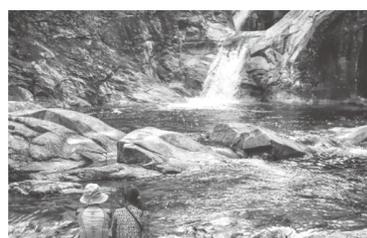
■ 덕구계곡 트레킹 코스  
응봉산에서 온천이 있는 덕구리까지의 코스로 가는 도중 선녀탕, 옥류대, 형제폭포 등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덕구계곡 중간 지점에 위치한 용소폭포는 용이 지나간듯한 꼴뿔거림이 압박에 새겨져 있으며, 그 위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린다.

온천이 용출돼 계곡에 들어서면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으며, 금문고 등 세계의 유명한 다리를 본떠 만들어 놓은 12개의 교량이 트레킹 코스에 설치되어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계곡 안쪽에는 온천이 자연 용출되는 온천탕 옆으로 휴식 겸 피로를 풀 수 있는 온천 족욕탕이 있다.

■ 백암산 등산로  
백암산의 서쪽에 자리 잡은 백암산은 백두대간의 낙동정맥에 속한 산으로 산체가 크고 너럭하며 계곡 또한 깊어 낙동강으로 흐르는 반변천



과 동해에 유입되는 평해 남대천의 수원지이기도 하다.

산 전체에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하고, 용이 살았다는 용소를 비롯하여 맑고 깨끗한 계곡과 갖가지 형상을 한 바위들이 한데 어우러져 비경을 이룬다. 백암산의 높이는 1,004m이며 천사봉이라고도 불린다.

산행을 즐기고 백암산에서 산행의 피로를 풀며, 전지훈련 장소로도 각광 받고 있다.

■ 왕피천생태탐방로 국내 최대 면적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우수한 식생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수달, 산양, 매, 삿, 담비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 야생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자연자원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다.

총 4개의 탐방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 보호를 위해 예약탐방 가이드제를 시행하여 하루 탐

방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 ■ 왕피천은어길(뱃도랑길)

총 길이 2.2km의 트레킹 코스로 농지에 물을 대는 수로인 뱃도랑을 매워서 가파른 바위 절벽 기슭을 따라 왕피천 계곡에 조성된 이 길은 은어가 산란하러 오르내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

울창한 숲과 잔잔한 물소리의 탐방로 분위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자연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선사한다. 현재는 임시 폐쇄 중이며, 더 안전한 길로 거듭나기 위한 공사를 시행 중으로 울진말에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울진읍 연호공원 일대와 평해읍 월송정 일대에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 중이며 추후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연계한 걷기를 통한 웰니스 공간을 확충 중에 있다.

이처럼 울진에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숲길, 트레킹 코스가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숲, 울진'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청정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걷기 길이 마련되어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도시를 잠시 떠나 자연 속에 머무는 것이다. 울진군의 다양한 걷기 길을 체험을 통해 청정 자연 속에서 상쾌함을 느끼고 심신의 피로를 푸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고령군, 생활원에  
기술보급 교육 추진

고령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하는 "2024년 생활원에 기술 보급(일일원예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우륵공원(대가아읍 중화리 552-65)에서 고령군우리꽃연구회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은 다양한 원예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정서 함양과 지속적인 화훼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심적 치유 및 생활의 활력 제공으로 농심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화훼장식 분야의 기본적인 작업 기술을 습득하여 원예활동을 생활 속에 이용 및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가아읍 중화리에 소재한 우륵공원은 2021년 준공되었으며,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불거리와 경관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휴식과 교육 공간 또한 제공하고 있다.

고령군우리꽃연구회(회장 이선희)는 "올해는 새로운 장소인 이곳 우륵공원에서 생활원에 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꽃연구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석과 단체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배영백 기자



영주시드림스타트,  
가족 영화 나들이

영주시드림스타트는 지난 14일 롯데시네마 영주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60명이 참여하는 '가족 영화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화목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 영화 관람을 지원했다.

이날 관람 영화는 최근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였다. 영화관람에 참여한 아동 박OO(11세)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매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영주시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초등학교 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입산부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전성기 기자

# 봉화군, K-베트남 벨리 사업 순항...



## 국내 유일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충효당 문체부 장관, 주한베트남 대사 참여

경북도와 봉화군은 지난 13일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진행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충효당 방문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코깅의 재발견 대구·경북(안동, 봉화)' 방문의 일환이다.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충효당 방문행사는 한-베 수교 30여 년간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동반 성장한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경북에 펼쳐줄 기회를 열망에서 추진됐다.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

게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인 충효당, 유허비, 재실이 남아있고 직계가족들이 살고 있다.

베트남 리왕조는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난 최초의 장기 독립왕조로 베트남 국민의 정신적 지주인 호찌민 주석이 생전에 몇 번이나 존경을 표시했던 독보적 위상의 왕조이다.

이 역사적 연원을 바탕으로 경북 봉화군에서는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행사는 동 사업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을 잇는 문화교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요청을 위해 경상북도지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으로 성사됐다.

또한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이 양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국가 對 국가 사업임을 알리기 위해 주한베트남대사도 함께 행사에 초청됐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 이주배경인 가족의 환영 세리머니에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환영사, 유인촌 문체부 장관·부호 주한베트남대사 및 임종득 국회의원의 인사말, 박현국 봉화군수의 사업 현황 브리핑 및 건의사항 제안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소나무 기념식수 행사와 화산이씨 문중, 베트남 이주배경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간담회가 개최돼 뜻깊은 행사로 끝났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 사업을 우리 경북 봉화만의 사업을 넘어,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800년을 위한 교류거점이 되어 향후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베트남 벨리는 양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교류협력의 거점"이라며 "경북에서 시작한 국가차원의 문화콘텐츠를 확대해 지방소멸과 저출산에 대응하고, 미래 이주사회의 공존을 실현할 수 있는 선도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우리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의 개발을 통해 한-베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이주배경인들의 교류공간 및 관광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양 국가 간 우호협력과 다양한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약 2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의성군,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 행정안전부 표창 수상

의성군 지난달 27일 '2023-2024년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의성군이 가축전염병 재난 대비·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의성군은 올해 초 고병원성 AI 발생 시 자체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지휘로 가축전염병 추가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수 주재 상황 회의 일 2회 실시로 상황 판단 및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부서에 집중된 업무를 4개 반으로 분산 운영하여 지역 재난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인근 부대와 협조하여 주요 이동 요인에 대한 소독 강화 뿐만 아니라 발생농장 상공에는 드론을 활용한 방역 활동도 병행하였다. 박재성 기자

# 영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한 방역 총력

## 치매예방하러 스마트 TV 앞으로 모두 모이세요...

영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22시 20분 화남면 금호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08시 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대응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15일 11시 화남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발생을 신고받은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 이동제한 조치 및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초동방역팀 투입을 요청했다.

당일 15시 부시장 주재로 상황점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22시 30분 중수본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되자 22시부터 대구, 경북도 전체에 이동통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고, 발생농장의 전두수 살체분과 동시에 반경 10km 방역대 내 5개 양돈농가와 위탁농장 4개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인근도로에 이동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해 축산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방역에 나서고 있으며,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10km 이내 포획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영천시는 그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축

산과에서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소독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영천전자경매가축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양돈농장에 7개 반공동방역단을 동원해 주기적인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을 통해 축산농가 예찰 및 방역시설 보완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농가 준수사항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우리 시는 가축방역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황실로 신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 최은하 기자

# 제1차 고령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안내

## 소규모 취업박람회 형태 운영 구인·구직 연계 편의 극대화

고령군은 오는 20일 대가아읍 금빛마실 어울림센터에서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1차 고령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구인가업과 구직자들이 한 자리에 참석해 구직상담이력서 작성 컨설팅부터 현장면접 및 채용까지 연계 지원하는 채용행사다. 작년 3차례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은 목표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취업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편한 분위기 속에서 차한 잔의 여유와 함께 취업상담이 가능하다.

구직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군 보건소에서 기본 건강 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진 등)과 금연



상담을 병행 실시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 지참 시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사전예약 및 문의 사항은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와 청년 창업 투트랙의 상호 연계와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판매망 다각화를 위해 킬트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배영백 기자

## 의성군, 의성마늘 기계화 우수모델 수확 연시회

의성군은 지난 14일 마늘 전과정 기계화 촉진을 위한 의성마늘 기계화 우수모델 수확 연시회를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가졌다.

군이 추진 중인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시회는 벼농사 기계화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계화율을 보이는 발농업에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다양한 의성마늘 맞춤형 기계화 장비를 연시·전시하여

## 성주읍 순환 전기마을버스 노선 확대 개편

성주군은 오는 26일부터 읍내를 순환하는 전기마을버스 노선을 새롭게 확대 개편 운영한다.

이번 노선개편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마을버스운행을 확대하여 그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마을버스운행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농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연시회에는 마늘 농기계 전문생산업체가 참여해, 마늘 줄기절단, 수확, 수집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고, 파종기, 붐 스프레이형 방제기, 마늘 선별기 등 다양한 마늘 기계를 선보였다.

군에서는 넓은 두둑 폭과 경운기형 기계에 중점을 둔 노동집약적인 관행 마늘 재배방식에서 벗어나, 파종·수확·병해충 방제에 최적화된 다양한 트랙터 부착형 마늘 기계를 보급했는데 인건비 크게 절감하고 농가 경영비를 개선하는 성과가 기대된다. 박재성 기자

총 4개의 마을버스 노선 중에 이용객이 꾸준히 많은 △1·3·4노선은 문화예술회관·삼산1리·성산동고분군·성산3리 등 읍 외곽으로 연장운행을 추진하고, 이용객이 저조한 △2노선은 전면 개편하여 성주일반산업단지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마을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이 많이 바뀌게 되므로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나 휴대폰에서 대중교통 어플(네이버지도 또는 카카오맵)을 통해 미리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2024.7 ~ 2026.12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참여자 한 명이 국민  
10,000명을 대표합니다.

## 조사대상

전 국민 대표로 표본 선정된 어린이·청소년·성인  
조사원이 국민 대표를 찾아갑니다.

## 조사내용

환경노출관련 설문조사  
환경오염물질 농도 분석 및 임상검사  
건강한 생활습관 안내

"본 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법정조사입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